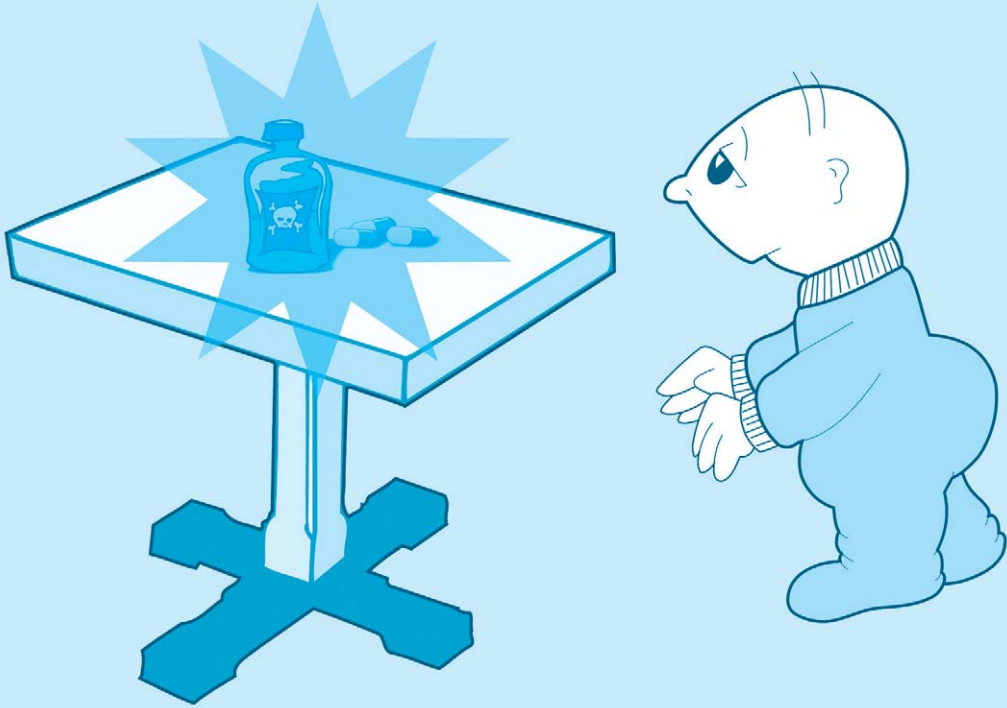


모든것을 먹는것으로 보는 아이들, 조심!



우 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. 그중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어이 없게 어린이가 희생당하는 경우로 이물질과 독극물 사고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해 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중 이물질 사고는 236명, 독극물 사고는 57명에 이르고, 대부분이 컵돌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로 무심코 방치한 약이나 가정용품, 화학물질을 먹어 발생하며, 빙초산이나 살충제, 세제 등 치명적인 것에서부터 방부제, 접착제, 다리미풀, 샴푸, 화장품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.

따라서 가정에서는 화장품, 성인 복용약 등 아이들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높은 곳이나 별도 공간에 보관·관리해야 하며, 부득이 위험한 물질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. 